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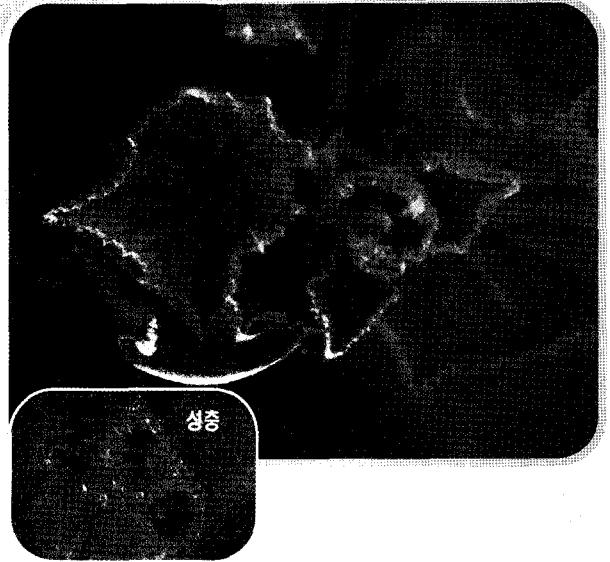
오 이 (1)



■ 이관석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점박이응애

응애아강 잎응애과. 점박이응애는 년 8-10회 발생한다. 지면잡초, 낙엽 등에서 성충으로 월동하는데 추위에 아주 강하다. 25℃에서는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9일로 매우 짧다. 2월중하순의 이른 시기부터 발생이 늘어나며 또한 연중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덥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여 기뿐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많이 발생한다. 점박이응애는 구침을 기주 식물체의 잎조직 속에 찔러 넣어 흡즙하며, 기해부위는 흰색 반점이 생기고 누렇게 변색되고 심하면 잎이 마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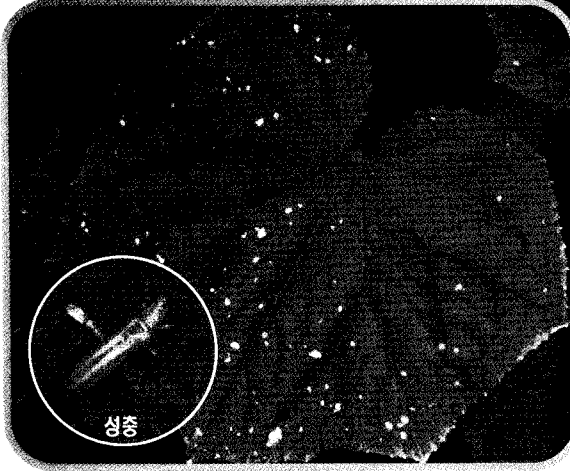
새순피해

그을음피해



매미아목 진딧물과. 겨울기주인 무궁화, 석류, 부용 등의 겨울눈이나 겉껍질에서 알로 월동한다. 4월 중하순에 부화하여 간모가 되면 단성생식을 하면서 1-2세대를 지낸다. 5월 하순 또는 6월 상순에 유시충이 출현하여 여름기주인 작물로 이동하여 피해를 준다. 약충, 성충이 모두 기주식물의 잎 뒷면에서 집단으로 서식하면서 가해를 한다. 진딧물에 의한 작물의 피해는 직접적으로 흡즙에 의한 작물의 변색, 위축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각종 식물바이러스를 매개하여 발생한다. 또한 진딧물이 배설한 감로에 의한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꽃노랑총채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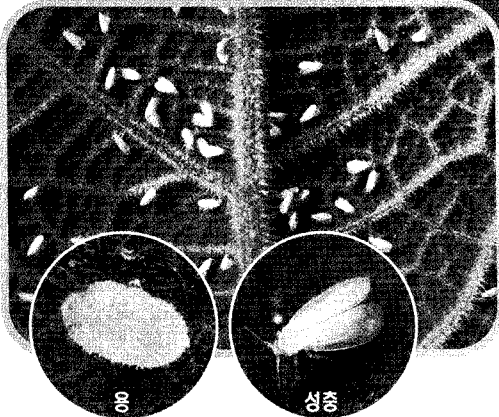
총채벌레목 총채벌레과. 암컷 성충의 몸길이는 1.4-1.7mm이다. 몸색깔은 밝은 황색이고 보통 배의 각 마디 중앙에 갈색반점을 가지고 있다. 부화한 유충은 식물조직을 흡즙하면서 2령을 경과하며 노숙유충은 땅 속에서 전용, 용기간을 거쳐 성충이 된다. 알에서 성충까지의 발육기간은 25℃에서 18일정도이다. 기주범위가 매우 넓어 많은 작물을 가해한다. 특히 꽃을 선호하기 때문에 꽃과 열매에서 피해가 심하다.

대만총채벌레와 오이총채벌레

총채벌레목 총채벌레과. 대만총채벌레는 꽃노랑총채벌레와 함께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크기는 꽃노랑총채벌레와 거의 비슷하나 몸색깔은 진한 갈색이다. 오이총채벌레는 전남북, 제주 등 남부지방의 시설재배지에서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외래 총채벌레이다. 몸색깔은 밝은 노랑색이고 크기는 작은 편이다. 꽃을 선호하는 꽃노랑총채벌레와 대만총채벌레와 달리 잎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인 생활사와 피해증상은 꽃노랑총채벌레와 유사하다.



온실가루이



매미아목 가루이과. 외래해충으로서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후반 수원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성충의 몸길이는 1.4mm 정도이고 알은 산란 직후는 옅은 황색이나 부화시에는 흑색으로 변색된다. 약충과 성충이 모두 진딧물과 같이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는데 주로 잎의 뒷면을 가해한다. 흡즙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잎과 새순의 생장이 저해되거나 변색, 위축되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발생밀도가 높아지면 배설된 감로에 의해 그을음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